



2.7g의 '마력'에 빠지다

■ 탁구 저변 확대 나선 '광주 명문클럽'

탁구는 직사각형의 테이블 중앙에 네트를 치고 양편에서 공을 쳐넘겨 득점을 겨루는 스포츠로 핑퐁 또는 테이블 테니스라고도 한다.

상대방과의 거리가 짧아 공의 왕복이 빠르고 공이 가벼워 각종 회전구(回轉球)를 구사할 수 있어 복잡한 전술 기술의 숙련이 필요한 운동이다.

특히 탁구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70~80년대만 해도 동네에서 탁구장 한 두 곳은 쉽게 볼 수 있는 대중 스포츠였다.

하지만 최근 배드민턴, 배구 등 다양한 레저활동이 활성화되면서 그 자리를 많이 빼앗겨 탁구장 보기가 어려워졌다.



창단 3년 됐지만 실력은 광주 동호인 클럽 중 톱 클래스

매주 금요일 화합 스매싱 ... 회원 25명 '탁구 전도사' 자임

매년 2월 '명문배 여류 탁구대회' 개최도

탁구의 잃어버린 위상과 보급을 위해 힘쓰는 탁구 클럽이 있다. 주인공은 '광주 명문클럽'.

지난 2005년 1월 15명의 회원으로 창단한 명문클럽은 3년이라는 짧은 역사지만 광주지역 40여개 탁구 동호인 클럽 중 당당히 톱 클래스에 이름을 올려 놓고 있다.

현재 회원은 25명. 남자회원이 17명, 여자 회원은 8명이다. 지난 3일 광주시 운동동 아름다운교회 4층, 6개의 테이블

에서 명문클럽 회원들이 짝을 이뤄 게임을 즐기고 있다. 회원들의 이마에선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고, 온 몸은 흠뻑 땀으로 젖는다. 총무를 맡고 있는 차현승(37)회원은 한쪽 테이블에서 여성회원들 지도에 여념이 없다. 클럽 여성회원 전담 지도자가 된 차 회원은 거의 매일 탁구장을 찾을 정도의 탁구 매니아로 여성회원들 실력향상의 키를 쥐고 있다.

남·여를 가리지 않고 파트너와 함께 기본 연습을 하거나 스카이 서브를 넣으며 전진 속공플레이를 펼치고, 드라이브 전형 플레이로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한다. 커트로 네트를 살짝 넘겨 파트너가 미처 따라오지 못하게 해놓고선 돌아 서며 살짝 미소를 머금은 약간 알미운 플레이도 이날의 즐거움이다.

강력하게 걸린 드라이브를 쫓아가지 못한 최고령 김용휴 회원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나이때문에..." 하고 되뇌지만 이내 라켓을 고쳐잡고 날카로운 전진 속공플레이로 득점을

따내고 왼주먹을 불끈 쥐어본다.

이들이 뿜어내는 뜨거운 열기와 집중력은 명문클럽이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최고의 클럽이 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모두가 열심이다. 클럽에 오는 이들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곧바로 몸을 풀고 라켓을 잡는다. 서로의 담화나 이야기는 게임 후다. 이같은 탁구에 대한 열정이 최고의 실력을 만들어 낸 것이다.

김인성(43)회장은 "명문클럽은 전남대학교 탁구 동아리 회원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 졌기 때문에 탁구에 대한 열정과 실력이 견비돼 빨리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며 서로간의 화합과 팀워크 또한 광주 최강이다"고 말했다.

명문탁구클럽은 광주에서 톱클래스일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름이 높다. 지난 6월 순천시장기 준 전국오픈 단체전 우승과 8월 체신청장배 광주전남오픈 1부에서 단체전 우승을 일구는 등 광주전남대회 뿐 아니라 전국오픈대회에서도 정상에 서는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

초대부터 3대까지 회장을 역임한 이상재(44), 강경성(42) 차연승(37), 은세현(47), 김인성 등 5명의 회원들은 명문클럽 최강 단체전 멤버다.

명문클럽의 산과 역할을 한 이상재 회원은 33년 구력으로 지난해 전국노동부장관기 직강인 탁구대회 1부 단식우승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고 있다. 은세현 회원도 구력 35년에 제 1회 새만금배 전국오픈탁구대회 1부 우승 등 다수의 트로피를 쌓아놓고 있어 프로같은 아마추어 수준을 자랑한다.

구력 10년의 김용휴(52) 회원은 남자부 최고령이지만 구력 10년에 관훈더 공격형 탁구를 즐긴다. 탁구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고생했던 50견을 고쳐 탁구 전도사가 됐다.

여성부에서는 박금순(55)회원이 최고령. 8년 경력으로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빠지지 않고 젊은 회원들과 한 판 승부를 벌인다.

신참 회원격인 김민자(50)회원은 1년이 갓 넘었지만 시합에 출전할 실력을 갖춘 노력과. 대학때 즐겼던 탁구를 살림과 아이들 키우느라 놓았다가 최근 다시 라켓을 잡았다. 탁구를 양성하는 학교에서 선수들의 플레이를 부럽게만 보았던 김민자씨는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자 평소 자신이 하고 싶었던 플레이를 즐기고 있다.

이들은 매주 금요일 밤 8시부터 주 모임을 갖고, 매월 셋째주 토요일 정기모임을 갖는다.

특히 명문클럽은 매년 2월 '명문배 여류탁구대회'를 개최해 탁구 저변확대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올해 까지 3회를 개최했으며 매년 남자 150명, 여자 200여명의 선수들이 출전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 = N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창단 3년만에 광주·전남지역 최고의 클럽으로 자리잡은 명문클럽은 '명문배 여류탁구대회' 등을 개최하는 등 여성 탁구인의 저변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화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선발부요와 당선의 요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관내 100여개 정사 문화정사 60여 정사 문화정사 02-228-0000 02-228-0000 02-228-0000

광주·전남 가능장1호 大山프리모님녀가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중신리빙 HAVER

가발

초슬림!!

최신상품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귀하의 불우한 인생을 밝혀주는 명품한정판가발 있습니다

02-228-0000 02-228-0000 02-228-0000